

시골 교회도
제자훈련이 답이다

아무리 아니라고 배워도 잘 깨어지지 않는 선입견이 있다. 예를 들어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모든 물체는 같은 속도로 낙하한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음에도, 볼링공은 야구공보다 빨리 떨어질 것만 같다.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는 과학자들이 진공에서 볼링공과 깃털을 가지고 자유낙하 실험을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에 나온 일반인은 깃털과 볼링공이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경이로워한다. 이미 300여 년 전에 갈릴레이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교실에서 이미 이 사실을 배웠음에도 말이다. 교실의 과학수업은 이 선입견을 잘 깨지 못한다.

교실의 과학수업처럼,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CAL세미나)에도 깨기 힘든 선입견이 있다. CAL세미나의 강사들이 아무리 제자훈련은 도시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목회의 본질 이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해도 “제자훈련은 시골 교회에서는 안 돼”, “오래된 교회에서는 어려워”라는 선입견은 잘 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깨뜨리는 ‘볼링공과 깃털의 자유 낙하 실험’과 같은 교회를 찾아, 그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했다. 오래된 시골 교회라 하더라도,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목회자와 교인들이라도 얼마든지 제자훈련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확증해 주는 목회 현장이었다. 바로 신철원제일교회 이경재 목사의 제자훈련 이야기다.



이경재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장본교회 담임목사로 섬기다가 1999년 신철원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현재까지 섬기고 있다.

읍내 교회의 극적인 변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65, 신철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1955년 개척돼 60년 역사를 가진 신철원제일교회 예배당이 세워져 있다. 이런 지역에 세워진 예배당치고는 상당히 현대적으로 잘 만들어진 건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예배당을 세우다가, 3억 2천만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담임목사는 사임하고, 교회는 분열되고, 교인들은 흩어졌다.

1999년 5월, 이경재 목사는 예배당을 짓다가 분쟁이 생겨 헌당에 배도 못 드린(헌당예배는 2004년 11월에 드려짐), 겨우 90여 명의 교인이 남아있던 이 교회에 17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현재, 이 목사는 신철원제일교회 역사상 가장 오래 담임목사직을 수행하고 있고, 교인들은 평균 500명이 출석하며, 재적은 700명이 넘는다.

지금도 1년에 80명 정도의 새신자가 들어오고 있으며, 출석안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38선 이북, 읍내 인구가 겨우 5천 명 정도 되는 지역임을 생각하면 놀라운 숫자다. 게다가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철원제일교회는 젊은 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교인 숫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평신도들이 스스로 신철원제일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터뷰에 응한 평신도들은 모두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이 교회를 통해 자신의 인생길을 찾았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 모든 것이 제자훈련으로 가능했다고 입을 모았다.

시골 교회를 사랑한 목회자

이경재 목사는 불신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현재 사모의 인도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다. 그것도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듣성듣성 교회에 나가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파주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도청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춘천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사모와 교제하면서 서서히 신앙의 열정을 갖게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저 나중에 목사님을 잘 돕는 좋은 장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랬던 그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것은 당시 교제 중이었던 사모의 “목회하지 않겠느냐?”는 한 마디 말 때문이었다.

“춘천시청에 근무할 때, 어느 날 지금의 아내가 저에게 목회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 말이 참 충격이었습니다. 목



이 목사는 성도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훈련밖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평신도 청년이었을 때와 부교역자 때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회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주시더군요. 월요일부터 직장에 안 나가고 기도원에 있다가, 수요일에 출근해서 바로 사표를 내고 신학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때가 28살이였습니다. 그렇게 칼빈신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해서 입학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7년 동안 사모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회고한다. 충청교회에서 4년, 은평장로교회에서 8년 등 서울에서 12년을 부교역자로 사역하다가, 춘천의 20명 남짓 모이던 농촌 교회인 장본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해 3년 반을 섬겼다. 이 목사는 도시에 남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는 사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였기에 별 어려움 없이 작은 시골 교회로 부임했고, 기쁨으로 사역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목사는 제자훈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다만 순수한 마음으로 농촌 교회를 섬기기 원했던 한 명의 목회자였을 뿐이었다. 이 목사는 장본교회에서의 사역 기간을 매우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서울의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상당 기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있는 교회에 내려가 사역하기를 기뻐했고, 자신이 부임한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했을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농촌 교회를 사랑했고, 거기서 만난 성도들을 섬기려는 마음

외에 자기 개인의 야망을 품거나 그 자리에서 안주해 버리지 않았다. 이경재 목사가 제자훈련 사역자로서 매우 중요한 인격적 덕목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되는 점이다.

시골 교회일수록 훈련이 필요하다

신철원제일교회 교인들은 장본교회에서 행복하게 사역하던 이 목사를 새로운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이 목사는 처음 신철원제일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시골 교회니까 자기 집에서 농사지은 것을 목사에게 갖고 오곤 하는데, 이분들이 집에 안 들어와요. 그냥 바깥에 내려다 놓고는 가 버려요. 그만큼 목사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은 거죠. 제가 부임하기 전 목사님이 12년을 사역하셨고, 제가 지금까지 15년 사역하고 있는데, 60년 역사에서 27년 빼면 33년, 그동안 목사가 15번 바뀐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목사님과 친해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와 아이들은 그냥 장본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목사는 성도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훈련밖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목회자가 떠나면 교회가 흔들리고 담임목사가 바뀔 때마다 교회



의 방향이 바뀌는 문제를 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평신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섬겨야 하고, 담임목사가 없어도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잘 운영돼 갈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 그가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평신도 청년이었을 때와 부교역자 때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내게 성경공부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정말 좋았어요. 이것을 잘 배워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충정교회에서 4년간 전도사로서 유초등부를 담당했을 때, 유초등부 학생 임원들에게 ‘어린이 디모데 훈련’을 하면서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매력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훈련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교사들에게 성경공부를 1시간씩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예배 후에 원하는 교사 8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시간씩 했는데 점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저녁에 자장면을 사 먹어가면서 밤늦게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의 마음에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음을 몸소 경험했고, 또 성경 말씀으로 훈련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 목사는 신철원제일교회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신철원제일교회의 평신도들은 시골 교회일수록 훈련은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를 맡을 교육전도사라도 있지만, 이런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직접 주일학교 설교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해낼 수 있을만한 훈련은 도시 교회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다. 작년 12월에 신철원제일교회로 옮겨 온 김정선 집사는 이전 교회에서 아무런 훈련도 없이 주일학교에서 설교해야 했던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회고하며,

시골 교회일수록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목사는 교회가 훈련 중심 교회로 재편되도록 교회 전체가 진행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찾다가, 2000년 11월에 CAL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다. 1999년 5월에 부임했으니 신철원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된 지 1년 반이 지난 시기였다.

이경재 목사는 CAL세미나에서 “이제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고(故) 옥한흠 목사에게 제대로 배우기 위해 개인 면담을 신청해 말씀을 듣기도 했다. 옥한흠 목사는 그때 이 목사에게 기성 교회로 부임해 간 상황에서 제자훈련을 접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한번 잘해보라는 격려를 해 줬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지원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잘 받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1기를 시작하라는 조언을 했는데, 이 한마디는 신철원제일교회 제자훈련을 뿌리내리게 한 귀중한 지혜가 됐다.

1기를 성공해야 한다

이경재 목사도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주위에서 시골 교회에서는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CAL세미나를 거의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실패를 해서 지금은 제자훈련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실패담 중에서 이 목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부정적 이야기는 “나도 해 봤는데, 1기까지는 모집이 돼서 어떻게 하지만, 2기, 3기가 모집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목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첫째로 1기 제자반 선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목사가 1기 제자반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기 제자반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2기나 3기를 모집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경재 목사는 제자훈련 목회를 성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1기 제자반의 성공을 꼽는다. 이 목사는 2000년

11월에 CAL세미나를 받은 즉시, 2001년 3월에 1기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그냥 해보는 수준은 분명 아니었다. 그야말로 목회의 사활을 걸었다.

“저는 1기에는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직접 뽑아서 제자훈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는 심방 목회가 아니라 훈련 목회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 심방을 안 합니다. 사실 이곳은 농촌 지역이라 다들 심방받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그렇게 선포하고,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이 1기가 실패하면 결국 나도 실패담만 늘어놓게 된다,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의 반응은 힘들다는 겁니다. 벅차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은혜롭다는 겁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 목사는 시작할 때부터 1기 제자훈련이 제자훈련 목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개척 교회라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만, 기성 교회에서, 특히 신철원제일교회처럼 상처받은 교인들은 “그래, 어디 잘 되나 보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서라도, 1기 제자훈련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1기 제자훈련생 중 한 명인 박미자 권사의 말을 들어보면, 1기 제자훈련이 이 목사뿐 아니라 사모까지 동원된 그야말로 총력전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때 제 아이가 세 살이었는데, 매주 사모님이 그 아이를 봐주시고 저는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저더러 제자훈련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제자훈련 과정도 힘들었고, 훈련받는 기간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쳐서 어려웠어요. 그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하던 훈련생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줬고,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었어요.”

신철원제일교회의 1기 제자훈련은 이 목사의 표현을 빌리면 “히트”를 쳤다. 지금도 그 1기 제자반이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8명의 1기 제자반이 수료예배 때

발표한 소감문과 인터뷰를 들으며, 모든 성도가 그들의 변화되고 성숙해진 밝은 모습에 감동했고, 제자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이 수료식에 의해 2기가 모집됐다. 이 목사는 이 수료식 외에 다른 제자훈련 지원자를 얻기 위한 동기 부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12기에 걸쳐서 108명이 제자훈련을 수료했고, 사역훈련은 9기에 걸쳐서 64명이 수료했다.

제자훈련의 성공은 예배 출석인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9년에 이경재 목사가 부임할 당시 60명 정도 됐던 출석인원이 2005년에는 150명으로 늘었으며, 교인들은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다. 지금은 출석인원이 350~400명으로 늘었으니, 5년마다 100명 정도씩 늘어난 셈이다.

원칙대로 하는 제자훈련

신철원제일교회만의 특별한 제자훈련 비결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경재 목사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다만 자신은 옥한흠 목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시골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는 팁을 얻어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이경재 목사는 그런 것을 찾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도 시골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결국 제자훈련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제자훈련 시간 엄수’였습니다. 시간부터 철저히 하자. 이것이 느슨하고 여유로우면 다른 것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 훈련은 실패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지금까지 시작 시간을 철저히 정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결석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D형 쿠티, 암송, 예습, 독후감, 주일 낮 설교 요약, 수요일예배 설교 요약 등의 과제도 모두 철저히



8명의 1기 제자반이 수료예배 때 발표한 소감문과 인터뷰를 들으며, 모든 성도가 그들의 변화되고 성숙해진 밝은 모습에 감동했고, 제자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게 요구하고, 점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시골 교회 성도들은 교육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따라오기 힘들다는 편견이 여지없이 깨어진다. 물론 그들에게 이것이 쉽지는 않다. 이 목사도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어지는 열매가 있기에 포기하지 않는다.

제자훈련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어 보면, 신철원제일교회 제자훈련이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간다.

“안수진 자매라고 있는데, 사역훈련을 받을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훈련 시간에 환자복을 입고 링거병을 들고 왔더군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고 강조했더니 그렇게까지 하더군요. 하사관인 이경우 집사님은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군사훈련이 갑자기 잡히기도 하고, 비상이라도 걸리면 제자훈련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겠다고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반, 사역반 2년 동안 제자훈련 있는 날에는 군부대 훈련이 없는 겁니다. 화요일 밤에 모이는 반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훈련이 있어서 못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나온 거예요. 훈련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 월요일부터 받을 훈련이 수요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부대 훈련의 날짜까지 바꿔 주시며, 제자훈련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신혜형 집사는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를 떠올리며 “저는 원래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훈련 받기 시작하면서 그게 교만이었음을 알게 됐죠. 수많은 숙제에, 시간에 쫓기는 것 때문에 처음 제자훈련 할 때에는 ‘바빠, 힘들어, 부담스러워’를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자훈련이 끝날 무렵에는 ‘감사합니다, 제가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경재 목사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지금까지 부목사에



게 맡기지 않고 직접 감당해 왔는데, 그동안 과제를 느슨하게 요구했던 적은 단 한 번밖에 없다. “한 번은 60대 이상의 나이가 많은 분들로 제자반을 꾸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암송이나 큐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느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3, 40대들에게는 철저합니다.”

훈련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기 싫으면 관둬라”라는 대답이 돌아간다. 하지만 관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들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내가 왜 진작 이 훈련을 받지 않았느냐며 아쉬워한다. 제자훈련을 받은 훈련생 중에는 조직폭력에 가담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이제는 교회의 여러 곳은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됐다.

이 목사는 제자훈련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정석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타성에 젖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는다.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 교재의 몇 과를 골라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두 날개라든지 다른 훈련프로그램에 있는 것들과 융합을 시켜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확실히 말합니다. 무조건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죠.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저 자신이 타성에 젖어요. 같은 교재를 사용하다 보니,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자훈련 교재를 새것으로 바꿉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교재를 다시 공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요.”

이제는 신철원제일교회 제자훈련이 소문이 나서 다른 교회에서도 훈련받으러 오면 안 되느냐는 문의가 있을 정도다. 하지만 신철원제일교회만의 독특한 훈련은 없다. 오직 시골 교회라고 느슨하게 하는 것 전혀 없이 정석대로 간다는 것뿐이다. 그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이경재 목사는 제자훈련의 성패는 바깥의 환경이 아니라, 목회자의 내면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도시나 시골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 내면의 열정이다.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

이경재 목사는 만약 아직 제자훈련을 시작하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가 제자 훈련에 관해서 물어온다면, 교인 수가 얼마가 됐던 무조건 시작하라고 권면 하겠다고 말한다. 시골 교회라서 어렵 다,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어렵다 등 의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다.

“일단 1기는 훈련을 시키면 변화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훈련하는 겁니다. 못하겠다고 하면, 탈락시켜 가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봐주지 말고, 편법을 쓰지 말고,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몇 명이 남게 되지만, 남은 분들은 틀림 없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수료식을 은혜롭게 진행합니다. 그분들을 보고 다른 분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어려울 때 지켜 줍니다. 그러니 CAL 세미나 받고 마음이 뜨거울 때,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경재 목사는 제자훈련의 성패는 바깥의 환경이 아니라, 목회자의 내면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교육 수준이 높은 교 인이라고 해서 제자훈련 과제를 쉽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대 도시 교회라고 해서 저절로 2기, 3기생이 모집되는 것도 아 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국, 도시나 시골이냐가 중요하지 않 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 내면의 열정이다.

“목회자가 식으면, 훈련받는 사람들도 식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 까 사람이 생겨요. 두려워하니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경재 목사는 제자훈련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 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

“저도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세미나도 받아보고, 실시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개 교회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프로그램들의 수명이 짧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적죠. 제자훈련만큼 적용하기가 쉽고, 성도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



람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 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어떤 목사님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철원제일교회의 제자훈련이 성공한 것은 환경 때 문도, 교인들을 잘 만나서도 아니다. 오직 이경재 목사의 열 정에 있었다. 박미자 권사는 시골 교회 목사들이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이 경재 목사는 시골 교회 목회자답지 않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 는 목회자라고 말한다. 이처럼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열 정이 지금의 신철원제일교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세계를 품는 교회

신철원제일교회의 표어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세계를 품 는 교회”다. 이경재 목사는 교회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 전교 인 수련회를 갖던 이야기를 해 줬다. 2005년 당시 출석인원 이 150명 정도였을 때, 이경재 목사는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 목사는 목사가 비전을 선포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비전 을 따르라고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비전을 세우는 수련회’로 떠 나 모든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그 수련회에서 세워진 신철원제일교회의 7가지 목표는 다 음과 같다. 2020년까지 1,000명 출석, 선교사 2명 파송 45 명 후원, 미자립 교회 승합차 20대 지원, 1,000가정 구제, 노 인복지(노인교실, 실버타운), 200명 장학금 지급, 북한 교회 개척이

다. 그리고 매년 얼마만큼을 할 것인지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교회가 예산을 편성하며 그 일들을 실행해 가고 있다. 주보에는 예배순서 아래에 “2020 비전”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이 목표가 지금 얼마만큼 이뤄져 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신철원제일교회가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주보를 보면, 신철원제일교회가 철원 지역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도 잘 드러난다. 총 8면으로 이뤄져 있는 주보의 한 면에는 “철원 역사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이경재 목사는 앞으로 교회가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웃을 섬기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교회가 지역 사회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도 연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신철원제일교회는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중 가장 큰 사업이 승합차 기증 사업이다. 농촌의 미자립 교회는 승합차가 꼭 필요한데, 자금 문제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0개의 미자립 교회에게 승합차를 기증하기로 결의하고, 지금까지 7개의 교회에게 실천했다.

“사실 우리 교회 승합차도 너무 낡아서 하나 새로 사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현 차를 몰지만, 미자립 교회에는 새 차를 사 주게 됐죠.”

신철원제일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작년에는 ‘세계를 품는 교회 출정식’을 갖고 194개국을 교인 한 사람이 한 나라씩 품고 기도하게 하고, 2007년부터 필리핀 잠발라스에서 단기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20명의 선교사와 협력하고 있고,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또한, 통일을 준비하며 북한에 교회를 세울 날을 기다리며 자금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2008년부터 시작된 성지순례에 4차에 걸쳐 현재까지 73명이 다녀오는 등 활발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크기의 도시 교회들도 감히 하지 못할 일들을 신철원제일교회는 비전을 세우고 꾸준히 감당해가고 있다.

신철원제일교회와 이경재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제자훈련은 여러 목회 방법론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목회의 본질이며, 어떤 환경에도 접목될 수 있고, 접목돼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환경에서든,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목회자만 있다면, 제자훈련은 가능하다. 제자훈련의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지역 사회를 섬기고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며 온 세계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명을 더욱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후에도 신철원제일교회가 시골 교회도 얼마든지 제자훈련을 통해 각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며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는 교회로 우뚝 서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희원 목사〉

